

우리를 낳은 땅에 대한 사랑노래

산천과 고개·강에 굽이굽이 얽힌 이야기들

땅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땅을 만든다. 그래서 둘은 닮고, 서로를 비꾼다. 새로운 세기를 앞둔 전환기 90년대의 그드머리에서 우리 땅을 살피는 책들이 부쩍 늘어난 것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개발이 지상과 제였던 7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우리 국토는 산이 길고,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 내내 '공시중'이었던 국토는 90년대에 들어서자 부실 징후를 드러냈다. 다리가, 백화점이 무너지고, 쓰레기더미는 독가스를 뿜어낸다. 그 막바지에 경제한파까지 맞은 우리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 국토에 귀를 바짝 대고 팔딱거리는 심장소리를 들어보려는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함께 살다보니/어느새 나무도 사람을 닮아버린 것일까/거센바람을 피해 언덕에 달라붙는 슬기도 배우고/돌을 비집고 땅 속 깊이 뿌리 내리는 재주도 익혔다/그러느라 어깨와 등은 흥칙하게 일그러지고/팔과 다리는 망측스럽게 뒤뚱했으리라/눈비에 몸을 맡기는 순순함에도 길이 들고/몸 속에 벌레를 기르는 너그름도 지나면서/신경림 <정월 초하루, 소백산에서 해돋이를 맞다> 중에서

나무와 사람을 바꿔 놓으면 땅에 길들며, 또 길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국토에 대한 애정을 담백 담은 책에는 어김없이 사람 사는 이야기가 섞인다. 그

가운데서도 《산천을 닮은 사람들》(신경림 외), 《화첩기행》(이상 효형출판)과 《섬진강 이야기》(열림원)는 사람들 이야기가 특히 큰 줄기를 이루는 책들이다.

《산천을 닮은 사람들》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졌다는 점에서 《화첩기행》과 비슷하다. 일간지에 연재했던 것을 수정, 보완해 책으로 엮었다는 것도 같지만, 무엇보다 국토가 낳은 사람들, 그 땅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담고 있다.

백두대간을 따라 시인과 문인들이 함께 기행하고, 그 감흥을 글과 그림으로 담은 《산천을 닮은 사람들》에서 광주를 찾은 소설가 송기숙씨와 동양화가 박문종씨는 광주의 무등산에서 그곳 사람들의 굽힐 줄 모르는 정신을 본다.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켰을 때, 모든 산신이 허락했지만 무등산과 지리산만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설화에는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천대받던 예술가와 예술의 고장을 찾은 《화첩기행》은 또 어떤가. 정선을 찾은 김병중 교수는 여량역 앞 청원식당에서 콧등치기 국수를 한 그릇 먹으면서, 그곳에 유난히 후다닥 해치우는 '치기' 음식이 많다는 사실에 정선 사람들의 궁벽한 산살림을 떠올린다. 옥수수 한 알로 네 개로 만들어 밥을 지었다는 '사철치기'를 생각하면 한 서린 노래 정선 아리랑을 이해할 수 있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씨의 《섬진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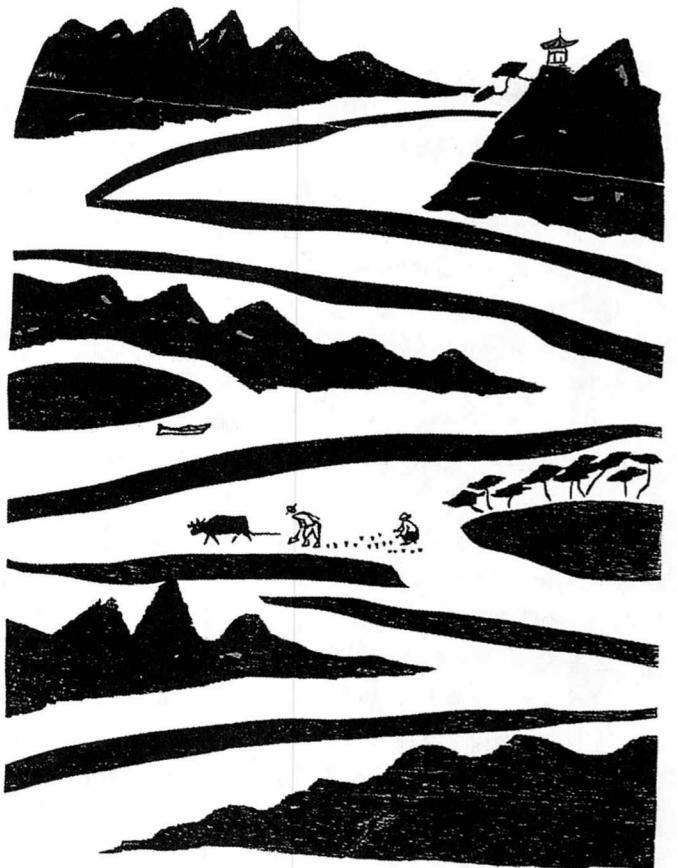
는 고향 진메 마을의 사계, 모든 나무와 풀, 꽃,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새들과 나비, 벌들, 모든 돌멩이와 바위, 물고기들, 논과 밭, 맑은 햇살과 하얀 눈송이와 빗줄기들을 예찬하면서 그것들과 한몸으로 살았던 험쌀같이 고운 사람들의 얼굴과 몸짓을 담고 있다. 제일 농사꾼이었던 아버지와 장난꾸러기 동네 아이들까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담백한 초상이다.

주제를 따라가는 여정

반면 《마음도 쉬어가는 고개를 찾아서》(김하돈), 《사라져가는 오지마을을 찾아서》(이용한, 이상 실천문학사),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정병현 외, 돌베개), 《노래, 사랑에 빠진 그대에게》(조용호, 이룸) 등은 길을 떠나도 집약된 주제를 따라간다.

《...고개를 찾아서》와 《...오지마을을 찾아서》는 특히, 기록으로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우리 땅의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이어 우리의 삶을 등글게 만들고 추억과 희망, 반추와 응시가 서로 부딪치는 교착점으로서의 고개와 점점 빈집이 되어가는 너와집, 골짜기의 오지마을을 찾은 발길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주 멈춘다.

2천년 묵은 옛길 죽령에서 홀연 만난 주막에서 밤 한그릇 사 먹으며 옛날 이야기 듣고 곧 수물될 아름다운 동강 주변을 서성이는 나그네의 발길, 시절이 바뀌면 땅도 사람도 바뀌는 법이지만 이 책들은 세월이 흘러



《산천을 닮은 사람들》중에서.

김·남·원·정·숙·영

도 꼭 지켜야 할 우리 자연이 사람들의 손에 파괴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 뿐 아니다.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노래, 사랑에 빠진 그대에게》는 노래와 고전문학의 고향을 찾아나선다. 전국을 방랑하던 김시습이 《만복사 저포기》를 저술했던 남원의 만복사는 석등 하나만 남은 스산한 풍경으로 책의 쓸쓸한 정서를 전한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바람 부는 광주 망월동에, '서해에서' (정태춘)는 태안반도의 외로운 포구 채석포에 얽혀있다.

실천문학사의 이순화 편집장은 "새로운 세기를 맞는데 우리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출판계를 자극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인문적 소양을 쌓으려는 독자들의 요구가 있어 이런 책들이 나온다"고 말한다. 또한 사진과 그림을 함께 실은 비주얼한 편집과 깊이있는 내용, 맛깔스런 문체로 독자들의 호응도 높다고 한다. — 이현주 기자

봄에 떠나는 책 속의 길

■ **고치령에 이르는 부석사 가는 길** - 풍기에서 소백을 따라 태백을 바라보면 길은 비야흐로 소문도 자자한 부석사길이다. 절도 절이거니와 산천 또한 유별하고 기운이 비범하여 허튼 걸음으로 가 닿아도 언뜻 대화염의 그림자를 밟고 돌아오는 가람. 백두대간이 문득 내륙으로 말머리를 돌려 서해를 향해 적에 그 남쪽 아래로 달아나는 영남의 산천을 붙들 어두기 위해 한곳에 기둥을 세워 교배를 묶었으니 부석사 절터가 바로 그곳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곳에 닿은 이들은 그 장중한 땅기운에 실려 그만 나를 잊으니 굽이 절집이 아니어도 참말 도량 중의 도량이다. - 《마음도 쉬어가는 고개를 찾아서》 중에서

■ **아름다운 하동 포구 80리** - 구레 별판을 적시고 다시 섬진강은 좁은 계곡 속으로 들어가는데 피아골에서 흘러온 계곡물을 만날 때부터 강물은 깊어지고 푸르러지며 하얀 모래 위를 소리없이 흐른다. 여기서부터 하동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80리길을 강물과 함께 간다. 하얀 모래밭이 강 이쪽저쪽 굽이에 눈부시게 쌓여 있다. 강 이쪽저쪽엔 마을들이 없다. 작은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푸른 대나무 숲이 강물에 사우댄다. 아, 매화꽃이 피는 섬진강을 그대들은 보았는지, 흰 모래밭가에 사운대는 뗏목에 마음을 베어보았는지. - 《섬진강 이야기》 중에서

